

김려(金鑣)의 유배 문인 형상화 고찰

홍진옥*

- I. 서론
- II. 이항복: 이상적 대상의 삶의 서사화
- III. 이광사: '신교(神交)' 대상의 현재화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담정(潭庭) 김려(金鑣, 1766~1821)가 유배를 경험했던 전대(前代)의 인물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 대해 지녔던 각별한 태도를 살피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김려의 경우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에게 보여준 수준 높은 인간 이해와 이들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운 뛰어난 문학적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과거 인물에 대해 지녔던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온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김려는 부령으로 향하는 유배 여정에서 이항복의 삶을 장편 한시로 남겼다. 북방으로 유배를 갔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이항복에 대해 각별하게 마음을 썼던 이유는, 김려의 가문이 광해군 대에 입은 정치적인 박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처지와 상황은 비록 달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혼란한 현실을 적시(揭示)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던 이항복은 김려가 이상으로 여겼던 행위를 몸소 체현한 인물로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령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 김려가 소환한 인물은 이광사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김려는 이광사에게 특별한 유대 의식을 지녔다. 특히 이광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부령의 인물들과 김려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이광사는 김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닌 새롭게 자신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신교(神交)’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김려는 이광사를 선배 문인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문학적으로도 긴밀하게 교류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김려에게 이광사는 과거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전대의 유배 문인에 대해 보여준 그들 삶에 대한 깊은 위로와 정신적인 교감은, 김려의 수준 높은 인간 이해가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신과 직접적인 교감이 없는 과거의 문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배 문인을 형상화 한 작품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김려(金鑣), 이항복(李恒福), 이광사(李匡師), 유배, 유배문인

1. 서론

담정(澹庭) 김려(金鑣, 1766~1821)는 조선 후기의 주요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에게 폭넓고 깊은 공감과 이해를 보여준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들을 문학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의 문학 세계가 이와 같은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데에는 그가 성균관 유생 신분이었던 32세(1797년)부터 시작된 약 10년간의 유배 경험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김려는 유배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처지를 마주한 위에서 인간 존재와 이를 둘러싼 세계에 의문을 지니고 질문을 거듭하며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고 당연하게 지나쳐왔던 그들의 사소하고 평범한 면모들을 문학의 전면으로 부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담지하고 있는 뛰어난 문학적성과 작자의 수준 높은 인간 이해에 걸맞게 지금까지의 김려 문학 연구는 그 점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필자 역시 김려 문학의 정수는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을 다룬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¹⁾ 그렇지만 김려가 심층적 차원의 인간 이해를 보여준 것은 주변부의 인물에만 한정되지 않으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신과 직접적인 교감이 없는 과거의 문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유배나 유람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서 그와 관련한 옛 인물을 떠올리고 이에 대한 감회를 남기는 것은 전근대 문인의 전통적 관습이라 여겨질 정도로 일반적인 양상이다. 수많은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김려 역시 부령으로 향하는 유배 여정에서 일정한 장소에 이르면 어김없이 그곳과 관련한 인물을 회고하며 작품을 남겼다. 철원(鐵原)에서는 김응하(金應河) 사당에 들러 그의 장대한 기상과 충성스런 절개를 기렸고, 덕원(德源)에서는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송시열(宋時烈)을 생각하며 서글픈 마음을 담아 한시를 지었으며, 시중대(侍中臺)를 지나면서는 육진(六鎭)을 개척한 윤관의(尹瓘)의 빛나는 공적을 읊었다.²⁾ 부령에서도 이간(李侃), 원희(元熹), 정문부(鄭文孚) 등 북방 지역에서 용맹하게 싸운 인물들의 업적을 칭송하거나 부령에 흔적을 남긴 이안눌(李安訥), 서지수(徐志修) 등을 회고하였으며, 부령에서 진해로 유배지를 옮긴 후에도 김려는 주변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정구(鄭逵), 조려(趙旅), 하연(河演), 조식(曹植)의 높은 지조와 아름다운 자취를 되새기기도 했다.³⁾

1) 홍진옥, 「담정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제4장 '소외된 인물의 조명'(83~122면) 참조.

2) 김려, 『담정총서』 권23, 『감담일기』, 11월 16일(음력), 학자원 영인, 2014, 제4책, 1648~1649면; 11월 20일, 제4책, 1661면; 11월 29일, 제4책, 1688~1690면. 본고는 김려 작품의 경우, 김려의 사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瀟庭遺藁』가 아닌 그가 생전에 自編한 『瀟庭叢書』를 주 텍스트로 삼고(위의 논문, 10~17면 참조), 이하에서 『담정총서』를 인용할 경우 서지사항은 간략하게 적는다.

3) 『담정유고』 권12, 『보유집』, 『答金季良書』, 한국문집총간 289, 572면, “朝夕之暇, 與緇髡一二輩、童子四五人, 曳篠筇穿芒鞋, 逍遙磻曲, 詠隰谷之詩, 誦寒泉之章, 嘯然長嘯, 愴慨泣下, 已而陟國師之峯, 憬普照之鑿, 訪鐵馬之古藏, 前瞻龜汀, 挹寒岡之清芬, 後瞰巴陵, 歆趙旅之高操, 而南臨鉅海, 波濤黏空, 聞山孤嶼, 出沒雲霄, 想像忠武公之神策妙略, 再造東藩, 凜然精忠, 撐巨宇宙, 西指晉陽, 慕淵亮之弘度, 槌仲之芳躅, 其餘烈至今有耿光者乎? 而臨石樓前, 長江已逝, 三壯士之英魂毅魄, 猶尙往來乎其間否? 回望大阪, 紆餘東走, 檜山孔御史之所曾遊賞, 高岑峻

그러나 가혹하리만치 험거웠던 부령으로 향하는 과정에서와 부령에 도착한 이후 김려가 각별히 마음에 두면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위로하였던 인물이 있었으니,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서화가로 명성이 높았던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이다. 잘 알려져 있듯 이항복은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것에 대해 극력 간쟁하다가 삭탈관작된 후 함경도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고,⁴⁾ 이광사는 1755년(영조 31)에 소론 일파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본고는 김려가 이항복과 이광사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던 작품들에 주목하여 이들 문인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은 김려가 부령 유배지로 향하는 과정을 기록한 『감담일기(坎窞日記)』와 부령에 대한 기억을 담은 「사유악부(思牖樂府)」에 실려 있다. 해당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항복과 이광사에 관한 작품은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는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음에도 소홀시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감담일기』와 「사유악부」 가운데 김려가 이항복과 이광사를 다룬 작품들을 분석하여 두 유배 문인이 김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아울러 해당 작품들이 김려의 문학 세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II. 이항복: 이상적 대상의 삶의 서사화

김려는 벗들과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혐의로 1797년(정조 21) 11월 12일 형조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뒤 함경도 부령(富寧)으로의 유배길에 올랐다. 부령으로 향하던 11월 19일에 김려는 이항복이 북청 유배지를 향하

嶺，窺峩前劣，鬱然北峙，行人駐車指點而躑躅者，周景游之故園。於是相顧欣然，擔乎忘歸，不省紅日之已墜，此可以銷選謫之愁，破幽憂之疾。”

4) 이항복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는 이항복, 포천문인협회 편, 『백사 선생의 생애와 시』, 문학공원, 2014; 이종목, 「이항복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7집, 한국한시학회, 2002, 323~381면 참조.

며 경유하였던 철령(鐵嶺)에 이르자, 자연스레 이항복을 떠올리며 당시의 심정을 『감담일기』에 기록하였다.⁵⁾ 은계역(銀溪驛)에서 황어연(黃魚淵)을 지나 험준한 철령(鐵嶺) 고개로 이어졌던 이항복의 북청 유배길을 똑같이 밟게 된 김려는, 그곳에서 느꼈을 삭막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당시 이항복의 심정과 그가 남긴 시 및 정충신(鄭忠信)의 일기를 인용하였다. 일기의 내용은 대부분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는 단순한 인용이라기보다는 당시 이항복의 유배 여정을 서술한 여러 글들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선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 특히 당시의 광경을 혼자 그려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김려는 이날 철령을 지나 오후에 부평천(富坪川)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이항복이 말을 매어 놓고 쉬던 곳이었으므로, 또다시 당시의 일을 떠올리고는 서글픈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⁶⁾

이후 8일 뒤인 11월 27일에 김려는 북청부(北靑府)에 당도하는데, 이곳은 본래 잠시 경유하는 곳이었지만 이날 저녁 눈이 몹시 많이 내려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유숙하게 되었다. 뜻밖의 우연한 상황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지 이날의 일기는 매우 긴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특히 이항복과 정충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부분만 아래에 제시한다.

㉠ 옛날 광해군 정사년(1617)에 폐모의 변고가 생겼을 적에 백사 이항복이 북청으로 귀양 가서 시를 지었다.

5) 『담정총서』 권23, 『감담일기』, 11월 19일, 1652~1654년, “曉起, 與淮陽吏校發行, 過銀溪驛, 暫憇黃魚淵, 踰阿瑟時, 至鐵門, 俗名鐵嶺, 嶺甚險峻. 昔光海丁巳廢母之變, 白沙李文忠公恒福, 陳子無讐母之義, 謫北靑, 過鐵嶺有詩曰: ‘孤臣不度濟人關, 日月昭昭宇宙寬. 靑海怒聲風氣勢, 白山孤影雪孱顏. 恩加沙塞水先泮, 心健關河路不難. 唯有憶君千里夢, 曉隨殘月趁朝班.’ 又以俚語作一歌, 宋尤庵先生翻而爲辭曰: ‘鐵嶺高處宿雲飛, 飛飛何處歸? 願帶孤臣數行淚作雨, 去向終南北岳間, 霑灑瓊樓玉欄干.’ 忠武鄭公忠信『北遷日錄』曰: ‘公以戊午正月初八日發配, 十八日早發淮陽, 過銀溪, 至黃魚淵邊歇馬, 午上鐵嶺, 嶺幾捫參, 鳥道懸雲, 白山茫茫, 關路悠悠, 北向行色已酸然, 自嶺下高山如從天降, 一步回首, 後從尚木末云.’ 想像伊時光景, 不覺淚下.”(밑줄은 인용자)

6) 위의 글, 1656년, “午投高山驛, 秣馬喂僕, 申時至富坪川, 李白沙歇馬處, 撫古槍恨.”

古嶽松牌記北靑	옛 돈대의 송패엔 북청이라 쓰였는데
板橋西畔少人迎	판교의 서쪽에선 마중 나오는 이 적구나
群山定欲囚豪傑	못 산들은 정녕 호걸을 가두려는구나
回望千峯鎖去程	돌아보니 일천 봉우리가 갈 길을 막아섰네

공이 다음해인 무오년(1618) 5월 13일 경자(庚子)에 귀양지에서 별세하였으니,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시중을 들고 죽은 뒤에 장사를 지내고서 삼년상을 치른 사람은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이었다. 그 뒤에 북청 사람들이 덕과 의리를 돌이켜 생각하여 성 밖 노덕사(老德社)에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워 공을 제사 지내고는 ‘노덕서원’이라 이름하였다. 이날 나는 눈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없어 사당에 가서 참배하려고 하였으나 북청 아전들이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하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② 금남군은 자가 가행(可行), 호가 만운(晩雲)이며, 가문이 한미하였으니 본계(本系)는 나주(羅州)의 정병(正兵)이다. 임진왜란 때 나이가 열일곱이었는데, 도원수인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栗)이 임금이 임시로 피난 가 있는 곳에 보낼 사람을 구하자, 금남군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가기를 청하여 장계를 가지고 왜놈들의 진영을 뚫고서 의주(義州)에 이르렀다. 이때 백사공(白沙公)이 병조 판서로 있었는데, 그를 한번 만나보고는 영재임을 알아보고 불리다 곁에 두고 책을 읽게 하니 능히 선진 고문을 읽었고, 문하의 명사들과 두루 사귀게 되었으니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신흥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과 같은 이들이 모두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문벌에 얽매이지 않았다. 훗날 건주(建州)에 사신으로 가서 오랑캐들의 동정을 살필 적에 오랑캐 우두머리가 그를 시험하고자 빈방에 가두어 놓고 굶기니, 밤새도록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는데 바로 『춘추좌전』이었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원수, 한성 판윤에 이르렀고, 진무원훈(振武元勳)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그가 불하 첨사(虜下僉使)로 있을 때 지은 시에 “천 년을 지난 자취 새들만 오락가락, 윤관 장군 비석에 푸른 이끼 얼룩덜룩하네. 옥문관으로 정벌 나간 반정원은, 갓은 고생 다하고서 겨우 목숨부지하고 돌아왔다네.”라고 하였으니, 그의 기개를 상상할 수 있다. 야사(野史)에 이르기를 금남군은 왜소하였으나 두 눈동자가 또렷하고 광채가 났다고 한다.⁷⁾

7) 『담정총서』 권23, 『감담일기』, 11월 27일, 제4책, 1676~1678면, “國昔光海丁巳, 有金壙之變, 白沙李公竄北靑, 有詩曰: ‘古嶽松牌記北靑, 板橋西畔少人迎. 群山定欲囚豪傑, 回望千峯鎖去程. 公以翌年戊午五月十三日庚子, 卒于謫所, 是行也, 終始侍側, 捐館之後, 運櫬歸襄, 心喪三年

위에 인용한 일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①에서는 앞서 철령을 지나던 때와 같이 김려가 북청에 이르러 자연스레 이항복을 떠올리고는, 이항복의 한시를 제시한 후 이항복을 배향한 노덕서원(老德書院)의 창건 배경과 그날 사당에 참배하러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적었다. 『감담일기』의 전체 구성과 체제를 살펴볼 때, 보통은 ①까지의 서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 뒤에 정충신의 사적에 관한 ②의 내용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분량은 다소 짧지만 정충신에 대한 소전(小傳)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에 관한 인적 사항과 일화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김려가 야사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정충신이 이항복의 유배 과정을 기록한 『북천일록(北遷日錄)』에 실려 있는 정충신 관련 사적을 문장의 배치만 조금 달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앞서 철령을 지나던 때의 일기와 ① 단락에 인용된 한시 역시 『북천일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내용 역시 단순 인용이라기보다는, 『북천일록』 가운데에서도 김려의 심정과 처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일기에서는 이항복이 유배를 가던 당시의 처지와 정충신에 대한 사적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면, 이항복에 대한 김려의 태도는 이날 일기의 말미에 덧붙인 한시에서 확인된다. 김려는 「눈을 만나 북청부에 유숙하면서 옛 일을 읊으며 회상하다(遇雪宿北靑府, 詠懷古蹟三首)」라는 제목의 장편 고시 3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항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항복의 삶을 서사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먼저 전반부를 제시한다.

者, 鄭錦南忠信也。其後北靑士人, 追懷德義, 創書院於城外老德社, 立祠以享公, 號曰老德書院云。是日余既以雪不得行, 欲馳往拜謁, 本府諸吏, 以迂路呵禁不許, 不勝悵黯。②錦南, 字可行, 號晚雲, 家世寒微, 本系羅州正兵。壬辰之亂, 年十七, 都元帥權忠莊擢, 購人可以奔問行在者, 錦南自奮請行, 持狀啓, 穿倭陣, 至義州, 時白沙方判兵部, 一見知爲英才, 召置左右, 使之讀書, 能讀先秦古文, 遍交門下名士, 如李延陽時白, 張新豐維, 崔完城鳴吉, 皆折輩行屏人地。後奉使建州, 察虜情, 其酋欲試之, 幽於一室而餓之, 達夜念書, 其聲琅然, 乃左傳也。登武科, 官至副元帥漢城判尹, 以振武元勳, 封錦南君, 諡忠武。其爲遼下僉使時有詩曰: ‘千年往迹鳥飛聞, 文肅公碑碧藓斑, 可笑玉門班定遠, 幾多辛苦乞生還。’可以想見其氣槩也。野史言錦南爲人短小, 雙眸炯炯, 精彩映發云。”

- | | |
|----------|-----------------------------|
| 1 雲嶽鍾靈秀 | 운악산이 빼어난 영기를 모아 |
| 2 神物挺間世 | 신령한 인물 세상에 태어나니, |
| 3 渥洼天駒種 | 악와에서 난 천리마의 종자요 |
| 4 九苞威鳳裔 | 아홉 색깔 위의 있는 봉황의 후예라네. |
| 5 隴西赫玄胄 | 농서의 빛나는 후손이요 |
| 6 鷄林炳華系 | 계림의 찬란한 혈통이지. |
| 7 穆稭啓昌祚 | 목릉께서 국운을 떨칠 때 |
| 8 天監錫勇勳 | 하늘이 용맹과 지혜 갖춘 인물을 주셨도다. |
| 9 篤生廊廟器 | 낭묘의 그릇 나왔으니 |
| 10 我公實開濟 | 우리 공께서 참으로 나라를 개도하고 구제할 인재요 |
| 11 龜著彰夙譽 | 나라의 중추적 인물로 일찍부터 명성 드러나니 |
| 12 魚水融深契 | 군주와는 물고기와 물처럼 깊이 결합하였네. |

제1~12구에 이르는 전반부에서는 이항복의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세상에 드물게 태어난 신령한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 한 무제(漢武帝)가 신마(神馬)를 얻었다는 악와(渥洼)에서 난 천리마, 아홉 가지 특징을 지닌 상서로운 봉황에 이항복을 비유하였고, 유서 깊은 가문인 경주 이씨의 자손임을 ‘농서의 후손’과 ‘계림의 혈통’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의 비범한 면모는 훗날 그가 조정에서 큰 역할을 할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바,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선조조(宣祖朝)에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인재가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본론에 해당하는 다음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당시 국가의 재상으로서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몰두하였던 이항복의 행적을 그려 보이고 있다.

- | | |
|------------------------|---------------------|
| 13 藹藹庚辰季 ⁸⁾ | 성대하도다 경진년(1580)에 |
| 14 特立文石砌 | 우뚝하게 대궐의 섬돌에 섰는데 |
| 15 龍蛇運陽九 | 임진년(1592)의 운수가 험난하여 |

8) 庚辰季: ‘庚辰’이 『담정총서』와 『담정유고』에는 모두 ‘庚申’으로 되어 있는데, 이항복의 생몰년을 참조하였을 때 경진년은 맞지 않다. 이항복은 경진년(선조 13, 1580)에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바, 이것의 오류로 생각되어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아울러 ‘季’가 『담정총서』에는 ‘季’, 『담정유고』에는 ‘季’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季’가 옳을 듯하나, 당시 알성시는 2월 25일에 치러진바 이 또한 맞지 않아 ‘해’를 뜻하는 ‘季’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 | | |
|------------------------|--------------------------|
| 16 島夷忽猖獗 | 섬 오랑캐가 갑자기 미친 듯 날뛰었네. |
| 17 公時慷慨泣 | 공이 당시 강개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
| 18 密贊渡遼計 | 요동으로 건너갈 계획을 조용히 도왔지만 |
| 19 灣京絕虬虬 | 용만은 실낱같은 도움마저 끊어졌으니 |
| 20 欲語鼻先涕 | 말을 하려니 눈물 먼저 흐르네. |
| 21 公時掌中權 ⁹⁾ | 공이 당시 중권을 담당하여 |
| 22 奕奕擁節制 | 홀륭하게 절제의 임무 맡았는데 |
| 23 諸梁任駟驢 | 심제량(沈諸梁)이 멋대로 날뛰듯 |
| 24 清魯黠反噬 | 가등청정은 교활하게 배신하였지. |
| 25 公時據台鼎 | 공이 당시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
| 26 力折和議銳 | 힘써 화의하지는 논의를 꺾으니 |
| 27 飛輶轉萊晉 | 수레가 동래와 진주를 전전하고 |
| 28 冠蓋湊燕薊 | 사신이 연경의 계주(薊州)에 모였네. |
| 29 訐謔佐密勿 | 원대한 계책으로 열심히 보좌하여 |
| 30 支撐盤石勢 | 반석과 같이 나라를 지탱하니 |
| 31 太陽竟中天 | 태양이 끝내 중천에 떠올라 |
| 32 群陰掃氛翳 | 음산한 어두운 기운 싹 쓸어내었지. |
| 33 七廟祗肅清 | 칠묘가 삼가 맑아지고 |
| 34 六轡慶安稅 | 육비가 경사롭게 쉬게 되었으니 |
| 35 策勳中興一 | 중흥시킨 제일의 공으로 책훈된 것은 |
| 36 聖恩酬勞勩 | 성상의 은혜로 수고한 공에 보답한 것이었네. |
| 37 雲臺繪丹青 | 운대에는 초상화 걸어 놓았고 |
| 38 月壇盟帶礪 | 월단에서는 대려의 맹세를 하였네. |
| 39 雙檜挾南巷 | 두 그루 회나무 남쪽 마을에 우거져 있고 |
| 40 檠戟樹甲第 | 창을 지택에 꽂아놓았네. |

제13~40구의 28구에서는 7년간 일어난 임진왜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항복의 공적과 이로써 국난을 극복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의 전환기는 목릉 성세(穆陵盛世)로 일컬어지며 문화적 발전을 찬란하게 이루는 한편,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전례 없던 혼란을 겪은 시

9) 中權: 병조 판서를 지칭한다. ‘中’은 三軍 가운데 主將이 있는 中軍을 가리키고, ‘權’은 책무를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春秋左氏傳』宣公 12년 조의 “중군에는 대장이 있어 모의를 해 나가고, 후군에는 정병이 있어 강하다(中權後勁).”에서 유래하였다.

기로 기억된다. 기나긴 전쟁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흥을 이룩했던 데에는 명(明)의 대규모 지원과 백성들의 결집 및 의병 활동 등의 요인들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당시 왕권의 허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정 전반에 대해 고심하고, 기민하게 전략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난 극복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았던 사대부층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 가운데 당시 병조 판서의 직임을 다섯 차례나 맡아 오직 국사에만 몰두하여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항복이다. 이 단락에서는 이항복의 유년 시절에서 곧바로 임진왜란으로 시간을 옮겨온 후 직접 선조의 피란을 호종(扈從)했던 일, 정묘호란 당시 화의론을 주장했던 일, 국난 극복에 제일의 공을 세운 선조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일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공이 당시[公時]’로 시작되는 4구를 세 차례 반복함으로써, 이항복이 조정의 안팎에서 나라를 위해 진력했던 핵심적인 공적을 강조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은 조정의 관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역할을 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¹⁰⁾ 후대에 이항복은 ‘오성과 한음’의 ‘오성’으로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과 함께 해학담의 주인공으로 널리 전해 내려오는데, ‘오성’은 그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잘 호종하여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으로 봉해진 결과인바 그의 삶에서 임진왜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점은 임진왜란 이후 창작된 「임진록」, 계열의 군담소설에서 이항복이 국가에 충성스러운 신하요 전략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웅으로 부각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¹¹⁾ 다만 소설이나 설화의 경우 실제 이항복의 행적에 허구적 요소를 더하여 더욱 극적으로 그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와 달리 김려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편폭 안에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의 공적을 압축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필치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다르다.

41 時事儻嬾變

시사가 갑자기 변하여

10) 정기억, 「이항복의 정치 외교 활동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11) 임진왜란 당시의 이항복이 고전소설 및 문헌 설화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기대,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의 활동에 대한 문학적 형상과 변모의 양상」, 『어문논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다.

- | | |
|----------|-------------------------|
| 42 蒼梧雲已逝 | 창오의 구름처럼 떠나시니 |
| 43 賊臣秉太阿 | 적신이 권력을 쥐고 |
| 44 乘輿日荒蕪 | 용상은 날로 황음하였네. |
| 45 尙忍廷美獄 | 정미(廷美)의 옥사 차마 말할 수 있으랴? |
| 46 切痛城穎誓 | 성영(城穎)에서의 맹세 절통하니 |
| 47 彝倫盡墜地 | 이륜은 모두 땅에 떨어지고 |
| 48 金墉一朝閉 | 금옹(金墉)의 변고에 온 조정이 단혔네. |
| 49 兩翼中馱 | 두 곁에서 중구가 날개를 달아주고 |
| 50 浮雲塗壅蔽 | 뜬구름이 마침내 막고 가리니 |
| 51 玄冬震殷雷 | 겨울에도 천둥소리 진동하고 |
| 52 白日貫陰蟠 | 빛나는 해가 무지개를 꿰뚫었네. |
| 53 公時屏江干 | 공이 이때 강가로 물러나 있다가 |
| 54 蒼黃起投袂 | 허겁지겁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는 |
| 55 懇懇處舜始 | 정성스레 순임금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
| 56 切切孔思繼 | 간절하게 공자와 자사의 이야기로 이었지. |
| 57 琅函數百字 | 훌륭한 수백 자의 글에 |
| 58 血淚凝雙睇 | 두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으니 |
| 59 一部麟經義 | 한 권의 춘추 의리로 |
| 60 恐君爲幽厲 | 유왕과 여왕 같은 임금 될까 두려워하였지. |
| 61 鬼蜮恣毒螫 | 귀신과 물어우가 마음대로 독을 쏘아 대고 |
| 62 豺獠闇睥睨 | 맹수가 몰래 눈을 부라리자 |
| 63 家髦乃遜荒 | 현신이 마침내 황야로 물러나니 |
| 64 塞漠風雪噎 | 변방의 사막에 바람과 눈이 붙어대네. |
| 65 淒涼槐柳蔭 | 치량하게 느티나무 버들나무 그늘지고 |
| 66 蕭瑟芰荷製 | 쓸쓸하게 마름과 연잎으로 옷을 지으니 |
| 67 三朝老黃髮 | 세 조정을 섬긴 원로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
| 68 閱歷禍患際 | 환난을 두루 겪었구나. |

제41~68구까지의 28구에서는 1608년 선조가 서거하고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 정국(政局)의 급격한 변화 및 이에 대한 이항복의 대응과 이후의 결과를 서술하였다. 오랜 기간 지속된 국난을 극복하자마자,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당쟁이 가시화되면서 조정은 이내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던 중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광해군의 적통을 문제 삼아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지지하는 소북(小北)과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大北)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 결과 1613년에 대북과의 요청에 따라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강등하고, 1618년에는 이이첨(李爾瞻)의 의견에 따라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시에서 일컫는 ‘정미(廷美)의 옥사’, ‘성영(城穎)에서의 맹세’, ‘금용(金墉)의 변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즉, 정미의 옥사는 송(宋)나라 태종(太宗)의 이복동생으로서 진왕(秦王)으로 봉해졌던 조정미(趙廷美)가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된 후 방주(房州)로 쫓겨났다가 죽은 사건이고, 성영에서의 맹세는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역 때문에 그 어머니를 성영(城穎)에 안치하고 “황천에 가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며, 금용의 변고는 중국 삼국 시대의 위(魏)나라 조방(曹芳)과 진(晉)나라의 혜제(惠帝) 등이 각각 폐위된 뒤 금용성(金墉城)에 옮겨진 고사를 가리킨다. 김려는 당시의 사건과 비슷한 전고를 인용하면서 정치적 사건의 참혹함과 비극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항복이 광해군에게 이에 대한 부당함을 논하며 간절하게 설득한 상소는 유명하다.¹²⁾ 위의 시에서도 언급하였듯, 이항복의 상소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먼저 순임금이 완악한 부모 밑에서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켜 결국 효로써 부모를 교화시킨 것, 두 번째는 자사가 그의 아들에게 출모(出母)의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을 들어 폐모론의 부당성을 설파하였다. 그렇지만 이 현의가 있자마자 조야에서 이항복을 탄핵하는 상소가 줄을 잇게 되었던바, 결국 이항복은 북청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에 대해 김려는 세 조정

12) 『光海君日記』 9년 11월 24일, “鰲城府院君 李恒福議曰: “臣八月初九日, 重得中風, 身雖不死, 精神已脫. 瞻天望雲, 分死自決, 今垂半歲, 尚在床褥, 凡干公事, 勢難仰對. 此事, 國家大事, 餘命未絕, 何敢以病爲辭而默然而已乎? 不審誰爲殿下畫此計者, 君父之前, 非堯、舜不陳, 乃古之明訓. 虞舜不幸, 頑父、嚚母常欲殺舜, 浚井、塗廩, 危逆極矣, 號泣怨慕, 而不見其有不是處也. 誠以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故『春秋』之義, 亦子無讐母之意. 況爲伋也妻者, 是爲白也母. 今方當以孝治國家, 一邦之內, 將有漸化之望, 此言奚爲而至於絀纒之下哉? 爲子之道, 體舜之德, 克諧以孝, 烝絜又, 回怒爲慈, 愚臣之望也.” 글을 올린 1617년이 정사년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 글은 「丁巳獻議」로 불린다.

을 섬긴 충성스러운 신하가 결국은 환난을 겪게 되었다며 그에 대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항복의 죽음은 김려에게 결코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으로만 기억되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69 熊魚早已判	삶과 의리를 일찍 구별하여
70 幸甚得正斃	다행히도 바름을 얻어 세상을 떠났으니
71 雲冥黑石坂	흑석령에 구름 자욱하고
72 日落黃淵汭	황어못에 해가 기우누나.
73 傷心戊午夏	슬프도다 무오년(1618) 여름
74 慟哭騎箕歲	애통하게도 공이 세상을 떠난 해인데
75 舉世皆溫蠖	온 세상사람 모두 흐리멍덩하거늘
76 公獨濯蟬蛻	공만 홀로 속세의 더러움 벗어버리셨네.
77 於昭帝左右	아 밝으신 상제가 곁에 계시고
78 玉欄春澄霽	옥난간에 봄이 맑게 개었으니
79 至今賞花處	지금까지도 꽃을 구경하시던 곳
80 霽雲長扈衛	상서로운 구름이 길이 호위하누나.

이항복이 대의(大義)를 지키고 바름을 얻은 인물로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후 그의 죽음에 대해 ‘슬프고[傷心]’ ‘애통한[慟哭]’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후 작품의 시상은 이항복의 시대로 되돌아가 자취를 좇던 과거에서 그가 밟았던 유배길에 서 있는 김려의 현재로 옮겨진다. 이항복이 자신의 절조와 대의를 지켜 삶을 마감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의 자취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기의 내용과 장편 고시를 보건대 김려가 이항복에 대해 지닌 마음은 다른 과거 역사 인물들보다 한층 각별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김려가 북방으로 유배를 갔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왜 두 세기 전의 인물인 이항복에 대해 유독 흠모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드러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김려의 가문이 광해군 대에 입은 정치적인 박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 연안 김씨는 노론 계열의 명망 있는 가문으로서 선조의

장인이었던 김제남(金梯男) 대에 이르러 절정의 번성기를 구가하였으나, 오히려 그 이유로 한순간에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당시 광해군이 행했던 김제남 일가의 멸문, 영창대군의 살해, 인목대비의 서궁 유폐는 국왕의 정치적 파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복인이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지고 서인·남인과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당쟁의 가속화를 첨예하게 드러낸 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김려는 광해군의 폭정과 당쟁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유독 주의를 기울였던바, 그가 만년에 편찬한 야사 총서에 『동각산록(東閣散錄)』¹³⁾을 비롯하여 광해군 대의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문헌들을 편입시키고, 광해군 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절조를 지킨 궁녀를 입전하여 전(傳)을 창작했던 것은 이러한 관심의 결과물이다. 당시 이항복은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정파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던 대표적 인물이었던바,¹⁴⁾ 김려가 이항복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지녔던 이유는 이 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독 선조와 광해군 대에 이룬 정치적 업적을 중심으로 이항복의 생애를 조명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처지와 상황은 비록 달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혼란한 현실을 적시(摘示)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던 이항복은 김려가 이상으로 여겼던 행위를 몸소 체현한 인물로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정치적 시련과 관련한 사건과 그에 관한 이항복의 처세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서사적 필치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려가 유배지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감담일기』의 소재목을, 이항복의 유배 과정을 담은 『북천일록』을 따른 것 역시 또 하나의 방증

13) 『동각산록』은 김려의 5대조인 金君錫이 1602년(선조 35) 7월부터 1709년(숙종 35) 9월까지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췌하여 엮은 책으로, 김제남의 딸을 계비로 맞은 일로부터 영창대군의 폐위, 폐모론에 이르는 사건의 전말이 작품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의 題後에서 김려는 자신의 가문이 화를 입은 내력을 서술하면서 광해군의 폭정을 언급하였다(『담정총서』 권10, 『창가루외사제후』, 『題東閣散錄卷後』, 제2책, 655~656면, “嗚呼! 光海金墉之變慘矣. 三綱淪而九法斲, 仙李之緒, 不絕如一線, 環東土四千里疆域, 幾幾乎入於禽獸夷狄之域. 嗚呼! 使一世顛隕趾方之人, 尙何忍泚筆及此哉. 當是時也, 光海陰謀廢母, 先害吾家, 斲殺國舅, 畢禍泉壤, 湛滅少長, 靡有子遺, 是萬曆癸丑六月也.”).

14) 李廷龜, 『月沙集』 卷49, 『領議政龍城府院君贈諡文忠李公墓誌銘』, 한국문집총간 70, 282면, “立朝四十年, 出入將相, 累登勳籍, 而家無甌石. 朝廷黨比相傾, 世無完人, 以公一意扶正, 故或未免標榜, 而公自超然特立於是非之外.”

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항복에 대한 김려의 존숭의 태도는 단지 부령으로 가는 도중에 같은 경로를 지나올 때에만 잠시 지냈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던바, 「사유악부」에서도 김려는 이항복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를 짓기도 하고, 『한고관외사』에 『북천일록』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제후에서 혼란한 당시의 정국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국왕과 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이항복의 걸출한 면모를 칭송한 것에서도 확인된다.¹⁵⁾

III. 이광사: ‘신교(神交)’ 대상의 현재화

다음으로 김려가 부령 유배지에 도착한 뒤 그곳에 남겨진 자취를 더듬으며 자신의 삶으로 소환한 인물은 이광사이다. 이광사는 널리 알려져 있듯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서화가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그가 속한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노론과 소론이 분기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종과 영조대에 준소(峻少) 계열을 대표하여 노론에 맞섰던 대표적 가문 중 하나이다. 이광사의 백부(伯父) 이진유(李眞儒, 1669~1730)는 신임옥사(辛壬獄事) 당시 경종을 보위하며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탄핵을 주도하였고, 부친 이진검(李眞儉, 1671~1727) 또한 노론 숙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영조 등극 후 노론 주도의 정국으로 일변하자, 백부와 부친 모두 유배에 처해진 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가문의 정치적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이광사는 언행을 단속하며 정제두(鄭齊斗)에게 양명학을 배우고 윤순(尹淳)으로부터 필법을 익혔다. 그러던 중 1775년(영조 51) 소론 일파가 일으킨 이른바 ‘나주 께서(羅州掛書) 사건’¹⁶⁾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역모의 일족으로 지목되면서, 당시 집안의 중심인물들이 모두 유배를 가게 되는 변고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이광사는 부령으로 유배를 가

15) 『담정총서』 권15, 「사유악부」하, 제235수, 제3책, 1051~1052면; 『담정총서』 권10, 『한고관외사제후』, 「題北遷日錄卷後」, 제2책, 715~71면.

16) 1724년 노론이 일으킨 金一鏡의 옥사 때 고문으로 죽은 당시 혼련대장 尹就商의 아들 尹志가 謫所인 나주에서 거사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서, 인심을 동요시키기 위해 나주 객사에 나라를 비방하는 께서를 붙인 사건이다. 당시 윤지와 尹光哲 부자의 집안에서 이진유와 이광사 등의 서신이 발견되면서 이광사 집안이 역모의 일족으로 몰리게 되었다.

1762년까지 7년 여간 생활하다가, 부령의 문인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신지도(薪智島)로 이배된 후 1777년(정조 1)에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한 세대를 상거(相距)로 부령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김려는 이광사에게 특별한 유대 의식을 지녔으며, 그의 자취를 돌아 보고 자신의 처지를 이입하면서 위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에서 그 점을 간취할 수 있다.

問汝何所思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所思北海湄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道輔筆畫似逸少	도보의 글씨는 왕희지 같고
令翊文章賽謝朓	영익의 문장은 사조와 다를 만하지.
天驥有子鳳有雛	천리마와 봉황 같은 부자이니
肯讓峨嵋大小蘇	소씨 부자에게 양보하겠는가?
況復柳汀屠龍手	더구나 영익은 용도 잡을 솜씨 지녔건만
同時竄逐來北隅	부자가 함께 북방으로 귀양 왔네.
騷人窮屜本如此	문사의 궁약 본래 이러한 법
落魄坎壈嗟已矣	곤궁하고 불우해지니 끝이로구나!
酒酣弔古江頭哭	술 취해 옛사람 조문하며 강가에서 통곡하니
喬木蕭蕭秋風起	높은 나무에 쓸쓸하게 가을바람만 이네. ¹⁷⁾

「사유악부」에서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제1~2구의 도입부를 지나면, 작품의 본론에 해당하는 제3~6구에서 김려는 이광사·이영익(李令翊) 부자에 대해 상찬한다. 이광사의 글씨는 왕희지와 같고 이영익의 문장은 사조(謝朓)와 같아, 이들 부자의 뛰어난 재주는 소순(蘇舜)과 소식(蘇軾) 부자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며 역사상 손꼽히는 인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들 부자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는 어떤 인물을 상찬하는 시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으로, 일반적인 투식처럼 보여 오히려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느

17) 『담정중서』 권14, 「사유악부」상, 제17수, 제3책, 926면. 작품의 말미에 “英廟乙亥, 李匡師道輔及子令翊李萬章仁父, 并竄富寧, 遺蹟散在閭里間.”라는 각주가 있다.

* 「사유악부」의 번역은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돌베개, 1996)와 오희복 옮김, 『글짓기 조신하소(조선 후기 김려의 시와 글)』(보리, 2006)를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끼게 한다. 그렇지만 제7~10구에서 두 인물은 과거의 시간에서 김려가 있는 현재의 부령으로 옮겨 오면서, 일반적인 상찬의 대상이 아닌 화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인물로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대상으로 바뀐다. 훌륭한 재주를 지녔음에도 부령으로 귀양을 오게 된 것, 문사로서 궁액을 당하게 된 것, 불우(不遇)로 말미암아 불투명한 미래를 보내게 된 것을 차례로 읊은 이 부분은 그들 부자가 밝아간 자취를 더듬는 동시에, 이들의 행적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며 한탄한 것으로도 읽힌다. 이어서 마지막 제11~12구에서는 스산하게 가을바람이 부는 곳에서 홀로 술에 취한 채 이광사 부자를 깊이 조문한다고 비탄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시를 마무리하였다. 고인(古人)을 조문하며 통곡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고인의 불우한 삶에 대해 느낀 슬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 토로한 괴로움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작품에서와 같이 이광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김려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 과거의 인물로 그려지는 데서 더 나아가 김려의 삶과 밀착되어 깊은 관련을 맺는 대상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이것이 역사상 과거 인물의 인품과 업적이 높이 칭송하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보여주었던 여타의 작품들과 분명하게 변별되는 점이다.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김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광사와 관계를 맺는다.

첫째, 부령에서 이광사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을 김려가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이광사는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닌 새롭게 자신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신교(神交)’¹⁸⁾의 대상이 된다. 김려가 부령에서 친밀하게 교류했던 인물들 가운데에는 이광사의 문하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김려가 뛰어난 재능을 칭송하였던 인물들이 있는데, 다음의 작품들

18) 神交는 정신적으로 교류한다는 뜻이다. 주희가 제갈량을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臥龍菴武侯祠」(『晦庵集』 권7)에서 “抱膝一長吟, 神交付冥漠”이라 한 것과 같이 본래 고인과 정신적 교류를 나눈다는 의미였으나(홍직필, 『매산집』 권2, 「重陽之翌 隨澄岳吳丈于道峯, 拜兩文正先生廟(三首)」, 제2수, “我生後大老, 神契在遺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神契’는 ‘神交’와 같은), 18세기 이후 청나라 문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역만리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정신으로 사귀는 동시대 인물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확장된 의미 개념을 적용하여 조선과 중국 문인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로 김동석, 「서울과 燕京學人의 神敎와 그 양상-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我愛城東朴誠信 筆畫遒勁遍魏晉 兒時受業員嶠門 寫罷磨紙三萬番 學書學骨不學肉 竹南白下堪弟景 身材中短性豪宕 能引大白尤奇放 信乎信乎吾知己 安得奮飛去相訪 성신은 이름은 경실, 호는 담수로 병영의 공목이다. 원교는 이도보의 호이다. 죽남 오준과 백하 윤순은 모두 명필이다(誠信, 名景實, 號澹叟, 兵營孔目. 員嶠, 李道輔號. 吳竹南坡, 尹白下淳, 皆名筆). ¹⁹⁾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내가 아끼던 성 동쪽의 박성신 굳센 필획 위진 때의 글씨와 같았네. 어려서 원교의 문하에서 수업 받으며 종이가 닳도록 쓰고 또 썼지. 글씨 익힐 적에 빼는 굳건하고 살은 없도록 배우니 죽남과 백하에 건줄 만하였네. 자그마한 체구에 호탕한 성품 큰 술잔으로 마시면 더욱 호방했지. 나의 지기 성신이어 성신이어 어떻게 하면 훨훨 날아가 만나볼 수 있을까?
---	--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富春諸儒孰知禮 景晦先生眞愷悌 質多文少澹且括 劈破義利猶切嚴 南溪餘波接員嶠 涇水之沚清於濂 向來張李劇喧鬧 先生守正終不撓 肉食者鄙同犬彘 安得如汝掌世教 남계는 문순공 박세채이니 원교의 스승이다. 마을 사람 이제성이 계모의 상에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부령의 유생 가운데 예를 아는 자 누구인가? 화락하고 온화한 경회 선생이라네. 질박함 많고 꾸밈 적어 담박한 성품이었지만 의리와 이익을 분별하는 것에는 몹시 엄하였지. 남계의 물결이 원교에 접하자 흐린 경수의 물가가 염계보다 맑아졌네. 지난번 장씨와 이씨가 크게 다툰 적에 선생은 마음을 지켜 끝내 흔들리지 않았지. 고관대작도 개돼지처럼 비루하게 여기니 어떻게 그대 같은 사람 얻어 세교를 맡길 수 있을까?
---	---

19) 『담정총서』 권14, 「사유악부」상, 제36수, 제3책, 937면.

상복을 입지 않아 장정세가 그를 공격하자, 마침내 큰 송사가 일어났다(南溪, 朴文純世采, 員嶠師. 府人李齊晟, 不服繼母喪, 張禎世攻之, 遂成大獄).²⁰⁾

問汝何所思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所思北海湄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道輔門生存者少	도보 문하의 남은 제자 얼마 없어
只有尙澈與兌耀	상철과 태요만 있구나.
方翁猶潔且多聞	상철은 지조 군센 데다 아는 것 많고
金叟質直頗小文	태요는 질박하여 꾸밈이 몹시 적었지.
前人典型不可泯	선생의 모범 민멸시키지 않으니
譬如孤鶴挺鷄羣	군계일학처럼 빼어나네.
我見二老心戚戚	내가 두 노인 만나면 마음이 울적해
兌酒痛飲話疇昔	술 실컷 들이키는 옛일 이야기했지.
愧余魯鈍同龔瞽	“귀머거리 장님처럼 미련한 이 몸
不及曩時流遷客	옛날 유배객에게 미치지 못함이 부끄럽구려.”

상철은 자가 군측이고, 형 상흠은 자가 여화인데 무과에 올랐고 또한 순박하고 곧았다(尙澈, 字君測, 兄尙洽, 字汝和, 登武科, 亦純直).²¹⁾

위의 시는 차례로 이광사의 문하생이었던 박경실, 김태요, 방상철²²⁾과 김태요에 대해 읊고 있다. 이들은 북쪽 변방 지역의 인물로서 이광사의 서법과 학문을 착실하게 전수 받아 부령의 학맥을 이어간 인물들이다. 다소 과장된 칭찬인 듯하지만, 김려는 박경실이 이광사의 서법(書法)의 정수를 이어 받아 당대의 명필(名筆)인 오준과 윤순에게도 견줄 만하다고 하였으며, 김태요에 대해서는 박세채에서 이광사로 이어지는 소론 학맥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김려의 상찬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이 훌륭한 인품과 재주를 지녔기 때문이지만, 아울러 이들의 학문적 재능을 평가함에 있어 이광사의 학통을 신실하게 이어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해 김려는 이광사와의 거리감을 좁힐

20) 위의 책, 위의 작품, 제56수, 제3책, 948면.

21) 위의 책, 위의 작품, 제110수, 제3책, 977~978면.

22) 方尙澈은 이영익의 『信齋集』에는 ‘方祥喆’로 나온다. 『送方祥喆歸北塞』(『신재집』 제1책, 한국문집총간 252, 434면)를 보면 이광사가 신지도로 이배된 뒤에도 방상철이 그곳을 방문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수 있었다. 이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은 물론 이들을 통해 자연스레 이광사의 존재와 흔적을 접하게 되고 이로써 유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이광사를 모범으로 삼아 삶의 지침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광사의 문인으로서 장현령(張玄齡)과 그의 누이는 김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 읊은 「사유악부」의 작품을 제시한다.

問汝何所思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所思北海湄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氣岸堂堂張把摠	당당한 기개 지닌 장 파총
眼看俗物如螻蟻	속물들 보기를 벌레 보듯 했지.
案牘圓嶠千軸詩	원교가 남긴 시 책상에 두고
暈夕吟哦詠歎之	아침저녁으로 읊조리며 탄복하였네.
踞坐敷衽若對越	상제 마주하듯 경건히 꿇어 앉아 옷깃 여미니
張也眞能信其師	장씨야말로 참으로 스승을 준신한 자라네.
自言一見圓嶠後	“원교 선생 한번 뵈 뒤로는
泰山之外皆培塿	어떤 사람이든 하찮게 보입니다.”라 말하였지.
擠棄投石者誰子	백성들 함정에 빠트리고 돌 던지는 자 누구인가.
薄俗滔滔顏獨厚 ²³⁾	각박한 이 세상에 유독 낮이 두껍구나.

파총은 이름은 현령, 자는 후교이니, 원교의 문인이다. 그 누이가 원교의 측실이었다. 나는 별도로 「장현령전」과 장애애에 관한 시를 썼다(把摠, 名玄齡, 字後喬, 員嶠門人. 妹爲員嶠副室. 余別有「張玄齡傳」及「張愛愛詩」.²⁴⁾

問汝何所思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所思北海湄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嶺北女俠問誰是	북방의 여협 그 누구인가?
蓮姬之前玄齡姊	연희 이전에 현령의 누이 있었지.

23) 顏獨厚: 『시경』 「巧言」편에 “공교로운 말 생활을 부는 것과 같으니, 얼굴이 두껍기 때문이니라(巧言如簧 顏之厚矣).”에 출처를 둔 표현이다. 해당 시의 마지막 두 구를 박혜숙은 “작한 백성 닦달하는 관리도 있긴마는 각박한 이 세상에 그 홀로 후덕하네.”라고 번역하였다(앞의 책, 89면). 그러나 해당 구절은 장 파총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장 파총과 대비시켜 백성들을 곤궁하게 하는 탐학한 관리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담정총서』 권14, 「사유악부」상, 제114수, 제3책, 979~980면.

曾奉巾櫛事員嶠
舉案齊眉似德耀
員嶠承恩遷南島
間道同行死海徼
世道日訛多讒慝
卽今蓮姬遭徽纆
徽纆徼纆古所無
吞聲掩泣長太息

일찍이 시중을 받들어 원교 선생 섬겼으니
공경하는 모습이 덕요와 같았지.
원교 선생 은혜 받아 남쪽 섬으로 옮기게 되자
셋길을 따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죽었지.
세도가 날로 어그러지고 참소하는 말 많아지니
지금 연희는 옥에 갇혀 있네.
이렇게 옥에 갇힌 일 예전에는 없었으니
울음 삼키고 눈물 흘리며 길게 탄식하네.

원교가 신지도로 이배되자, 장씨가 따라가 죽음을 함께하였다. 내가 체포된 후 연희가 이병정의 모함에 빠져 부령의 옥에 갇혔다(員嶠遷薪島, 張氏隨往同死余被逮後, 蓮姬爲秉鼎所陷, 繫府獄).²⁵⁾

장현령은 부령에서 파총(把摠) 직임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이광사의 문인이었으며, 그의 누이는 이광사의 측실이였다. 장현령은 신실한 자세로 스승을 섬겼고, 그의 누이 역시 끝은 지조로 이광사를 섬겨 그와 생사를 함께 하였다. 김려는 이들 남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지녀 별도의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장현령을 입전한 「장현령전」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김려가 창작한 장편 고시인 「장원경의 처 심씨를 위해 지은 고시(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에 장현령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 김려는 장현령에게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투영하고 있는바,²⁶⁾ 장현령의 사람됨과 그의 깨끗한 절개와 기상을 높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장현령의 누이에 대해서도 김려는 의협심을 지닌 여성 인물로 그려내면서 그녀를 잇는 인물로 연희를 일컬었다. 이것은 이광사에 대한 그녀의 지극한 정성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연희의 각별한 마음을 부각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광사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려가 이광사 부자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던 인물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이영익의 문인인 이백록(李百祿)·

25) 『담정총서』 권15, 「사유악부」 하, 제196수, 1029~1030면. 각주의 ‘員嶠遷薪島’에서 ‘薪’이 『담정총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담정유고』를 따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26) 홍진옥, 「『심씨를 위해 지은 시』의 보조적 인물 ‘장 파총’ 고찰」, 『국문학연구』 제37호, 국문학회, 2018, 156~161면 참조.

전순민(田舜民)·차남규(車南圭)를 비롯하여 이광사 집안의 이면시(李勉詩) 등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 부령의 곳곳에서 이광사 부자가 남긴 흔적들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이영익이 쓰다가 박경실에게 물려준 옥으로 만든 연적(『사유악부』상 제83수), 이광사가 그린 사슴 사냥 그림(『사유악부』하 제181수), 이광사의 서첩(『사유악부』하 제188수) 등을 실물로 접하게 됨으로써, 김려에게 이광사는 자신과 시공간을 격해 있는 과거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김려는 이광사를 선배 문인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문학적으로도 긴밀하게 교류하였는데, 부령에서 접한 이광사의 작품에 제시(題詩)를 남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다. 부령의 형제암(兄弟巖)에 새겨진 이광사의 글씨를 보고 지은 시에서 김려는 ‘삼엄하게 빛이 나는 뾰족한 창과 같고 돌무더기 같라 놓은 바위산 같으며, 신룡이 깊은 곳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꿈틀거리고 경쾌한 말이 머리를 흔들며 달리는 듯(戩矛研森巖, 岳巒礫磊砢. 神虯動蠅蠖, 快馬搖駢駮)’하다고 굳건하고 역동적인 필획을 상찬한 뒤, ‘홀로 아름다운 자취 따라 아득하게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싶구나(獨往豔芳躡, 窅然欲喪我)’라는 말로 과거의 이광사와 현재의 자신이 일체화되기를 염원하였다.²⁷⁾ 또한 이광사가 병풍에 남긴 팔준마(八駿馬) 그림을 본 후에는, 전반부에서 병풍에 그려진 팔준마의 모습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이광사의 서체와 그림을 칭송하는 내용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²⁸⁾

이광사가 남긴 글씨나 그림에 대해 제시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광사 부자가 동일한 인물을 두고 지은 작품을 보고서 이를 따라 시를 지은 경우도 있다.

問汝何所思	그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所思北海湄	북쪽 바닷가 그리워하네.

27) 『담정총서』 권6, 『의당별고』, 『題寧州兄弟巖, 李道輔刻字(擬次山有文章 皇甫判官湜)』, 제1책, 379~380면. 인용한 구절 가운데 ‘戩矛研森巖’에서 ‘戩’가 『담정정유고』에는 ‘戩’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戩’가 옳다.

28) 위의 책, 『寧州俄屋題李員嶠八駿障子(擬穆滿志空濶, 元武昌楨)』, 제1책, 377~378면.

妻家貞婦崔家女
苦節清風迺如許
夜半無人媿經時
紫電嘩嘩欄頭垂
仁父長歌道輔誄
滄老續貂嗟鄙卑
貞婦之夫德邵父
在於鷹野爲從祖
從古仁門多賢儔
會看棟樑擎天宇
鷹野從祖需妻崔氏 余別有孺人崔氏墓志銘及崔貞婦詩五十韻

최씨 집안에서 강씨 가문에 시집 온 정조 곧은 여인
곧은 절개와 맑은 풍도 바로 이와 같았네.
인적 드문 한밤중에 목을 매니
처마 끝에 번쩍번쩍 번개가 쳤네.
인보가 장편 시를 짓고 도보가 뇌문 지었는데
늙은 이 몸 뒤따라 작품 지었으나 비루하구나.
정조 곧은 여인의 남편은 덕소의 아버지
응야에게는 종조부가 된다네.
예로부터 어진 가문에 뛰어난 인물 많았으니
동량의 재질로 나라를 떠받드는 것 보게 되리.

(강응야의 종조부 수세의 처가 최씨이다. 나는 별도로 「유인최씨묘지명」과 최정부에 관한 50운의 시를 지었다.)²⁹⁾

이광사가 쓴 뇌문(誄文)과 이영익이 지은 장편 한시의 대상 인물인 ‘최씨 부인’은 김려의 부령 문인인 강상국의 종조모였다. 강상국은 김려에게 매우 독실하게 학문을 배우고 온 마음을 당해 김려를 섬긴 인물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김려는 “남전(藍田)에 심은 아름다운 옥의 후예”요 “중후한 몸에 고결한 정신이요 조정에 오를 큰 그릇”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³⁰⁾ 그런데 강상국의 종조모에게 절조를 지킨 행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광사 부자가 남긴 시문이 있었으므로, 김려 역시 이를 따라 묘지명과 시를 지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 작품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김려가 이광사를 선배 문인으로서 인식하면서 문학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했던 점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려는 부령의 벗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이광사의 「영주악(寧州樂)」을 노래하기도 하는 등³¹⁾ 김려가 부령에서 생활

29) 『담정총서』 권15, 「사유악부」하, 제152수, 제3책, 1006면. 이 작품이 『담정유고』에는 권5, 「사유악부」상에 실려 있다.

30) 『담정총서』 권14, 「사유악부」상, 제7수, 제3책, 920~921면,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淵. 最愛東里姜鷹野, 繾繾風采端且雅. 藍田種玉玉有孫, 肯與燕石爭卑尊. 骨重神寒廊廟器, 不是瑚璉是瓊璫. 讀書况復曉大意, 果腹便便五經笥. 尺蠖之屈久終伸, 會看搏鵬萬里翅.” 제11구의 ‘伸’이 『담정총서』에는 ‘神’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자이므로, 『담정유고』를 따라 ‘伸’으로 바로잡았다.

31) 『담정총서』 권15, 「사유악부」하 제296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淵. 老眼猶識鯖巖路, 張伯

을 하는 데 있어 이광사의 존재는 매우 각별했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이광사는 김려와 한 세대를 상거로 한 과거의 인물이지만 김려에게 있어 그는 결코 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먼 곳의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과 밀착되어 깊은 관련을 맺는 대상으로서 호명되었다. 부령 유배지에서 이광사는 김려에게 과거의 현인이자 현재의 벗이자 미래를 비추어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덧붙여, 이광사와 김려 모두 유배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사의 경우 유배 이전의 시기에는 주로 서법(書法)에 많은 힘을 기울이다가, 유배를 기점으로 시문을 본격적으로 창작하였으며,³²⁾ 김려의 경우 유배 경험을 통해 확장된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개성적인 시문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렇지만 이광사의 작품 창작은 주로 무너진 가문의 위상을 수습하고 타인과의 교유보다는 가족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다소 좁은 범주에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³³⁾ 이와 달리 김려는 자신이 처한 부령이라는 세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그 공간을 해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IV. 결론

이상에서 김려가 유배를 경험했던 전대(前代)의 인물 이항복과 이광사에 대해 지녔던 각별한 태도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10년간의 유배기 동안 김려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위치화하면서 몹시 예민하고 불안정한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특히 전도유망한 성균관 유생에서 한순간에 유배 죄인이 되어버린 데에서 온 절망감은 유배

能家水邊樹。憐渠詞賦清且奇，喜讀東坡體似之。才子風流曠千古，錦心繡腸非爾誰？尚憶前冬風雪惡，永樂亭南小略約。任窈窕家兌酒飲，拊掌同唱寧州樂。(謫客李匡師有寧州樂七言絕句百首)”

32) 현재 확인되는 이광사의 한시는 「동국약부」 30수를 제외하면 모두 206題 300首인데, 그 가운데 유배기 이전에 창작된 시는 10수에 불과하다고 한다(이승용, 「李匡師 流配期 漢詩의 抒情性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면 주17 참조).

33) 김동준, 「부령 유배기 이광사 한시의 내면과 진정의 지평」, 『한국한시연구』 제13호, 한국한시학회, 2005, 18면.

초기 그의 정신을 압도하는 것이었던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그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인물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이들의 삶과 자취를 되새기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가장 먼저 김려가 부령으로 향하는 유배 여정에서는 이항복에 대한 이상화를 통한 자기위로가 주목된다. 김려는 이항복이 유배지로 향하면서 지났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 이를 때마다 그를 떠올리면서 그가 남긴 한시 등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대변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항복의 삶을 장편 한시로 그려 내었는데, 그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도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시기의 정치적 공적을 주목하고 있다. 김려가 북방으로 유배를 갔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이항복에 대해 각별하게 마음을 썼던 이유는, 김려의 가문이 광해군 대에 입은 정치적인 박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비록 처지와 상황은 달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혼란한 현실을 적시(揭示)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던 이항복은 김려가 이상으로 여겼던 행위를 몸소 체현한 인물로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령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 김려가 자신의 삶으로 소환한 인물은 이광사이다. 이광사는 김려와 마찬가지로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김려는 이광사에게 특별한 유대 의식을 지니면서 그의 자취를 돌아보고 자신의 처지를 이입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특히 이광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부령의 인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이광사는 김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닌 새롭게 자신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신교(神交)’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김려는 이광사를 선배 문인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문학적으로도 긴밀하게 교류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가 부령에 남긴 시에 대한 제시(題詩)를 남기거나,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작품을 남긴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이광사는 김려와 한 세대를 상거로 한 과거의 인물이지만 김려에게 있어 그는 결코 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먼 곳의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과 밀착되어 깊은 관련을 맺는 대상으로서 호명되었다고 하겠다.

유배 문인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

대(前代)의 인물을 떠올리고 그들의 정신과 행적을 되새기는 일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려의 경우 이항복과 이광사에 대해 보인 그들 삶에 대한 깊은 위로와 정신적인 교감은, 그저 자신이 맞닥뜨린 불우함을 한탄하고 위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기억하고 떠올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김려의 수준 높은 인간 이해가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신과 직접적인 교감이 없는 과거의 문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배 문인을 형상화 한 작품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金鑣, 『薄庭遺藁』, 한국문집총간 289.

____ 編著, 『薄庭叢書』, 통문관 소장, 학자원 영인, 2014.

李令翊, 『信齋集』, 한국문집총간 252.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70.

李恒福, 포천문인협회 편, 『백사 선생의 생애와 시』, 문학공원, 2014.

洪直弼, 『梅山集』, 한국문집총간 295.

金鑣, 오희복 옮김, 『글짓기 조심하소(조선 후기 김려의 시와 글)』, 보리, 2006.

____,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 돌베개, 1996.

『光海君日記』(<http://sillok.history.go.kr>)

2. 논문

김동석, 「서울과 燕京學人の 神敎와 그 양상-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한문학 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935~965면.

김동준, 「부령 유배기 이광사 한시의 내면과 진정의 지평」, 『한국한시연구』 제13호, 한국한시학회, 2005, 325~355면.

이기대,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의 활동에 대한 문학적 형상과 변모의 양상」, 『어문논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53~180면.

이승용, 「李匡師 流配期 漢詩의 抒情性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종묵, 「이항복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7집, 한국한시학회, 2002, 323~381면.

정기억, 「이항복의 정치 외교 활동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홍진옥, 「『십재를 위해 지은 시』의 보조적 인물 ‘장 과충’ 고찰」, 『국문학연구』 제37호, 국문학회, 2018, 139~166면.

____, 「담정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A Study on Kim Ryeo's Figuration of Writers in Exile

Hong, Jin-ok

This paper analyzed Damjeong Kim Ryeo's exceptional attitude toward his predecessors Lee Hang-bok(李恒福) and Lee Gwang-sa(李匡師), both of whom were exiled,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im Ryeo received the spotlight for his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which was shown in his portrayal of marginalized people in society and his outstanding literary accomplishment by bringing such people to the forefront in his works.

Kim left a long poem on the life of Lee Hang-bok in Chinese poetry on his journey to Buryeong, his place of exile. This study traced Kim Ryeo's interest in Lee Hang-bok, among the many figures exiled to the northern regions, to the political persecution Kim Ryeo's family experienced during the reign of King Kwanghaegun. While their circumstances may have differed, Lee Hangbok, who pointed out the tumultuous reality amid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and defended his innocence, was a person who embodied the behavior that Kim Ryeo considered ideal.

The next person Kim Ryeo recalled after he arrived at his place of exile in Buryeong was Lee Gwang-sa. Kim Ryeo felt a special bond with Lee Gwang-sa. As he became acquainted with the people directly related to Lee Gwang-sa in Buryeong, Lee Gwang-sa was no longer a person of the past but a person who formed a new "spiritual relationship" with him. Based on this bond and emotional intimacy, Kim Ryeo recognized Lee Gwang-sa as his predecessor and a fellow writer and tried to communicate with him closely through literature.

The profound consolation and spiritual interaction for the exiled writers of the past show how Kim Ryeo's in-depth understanding of humans was not limited to the marginalized people in the society. The works on exiled writer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how how Kim Ryeo transcended time and space to interact with the writers of the past whom he had never met in person.

keywords: Kim Ryeo(金鑣), Lee Hang-bok(李恒福), Lee Gwang-sa(李匡師), Exile,
Writers in Exile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 ~2021. 11. 10.
계재결정: 2021. 11. 10.